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아타나시오스와 성 키릴로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신현 축일 다음 주일

성 에르밀로스, 성 스트라토니코스 순교자

제8조, 조과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토م 성찬예배에서

- 신현 축일 제2응송 / 예식서 302
- 신현 축일 찬양송 / 예식서 274
- 주일 입당송 / 14, A 218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 신현 축일 찬양송 / 예식서 274
- 성당 찬양송
- 신현 축일 시기송 / 예식서 274
- 사도경 : 에페소 4,7-13 / 158, 봉독서 488
- 복음경 : 마태오 4,12-17 / 158, B 129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아타나시오스와 성 키릴로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우리 교회에서 1월 18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아타나시오스(†373)와 성 키릴로스(†444)는 교회의 지혜롭고 위대한 스승들이면서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가 되신 분들입니다.

아타나시오스 성인은 첫 그리스도인 황제인 콘스탄티노스 대제 시대 때 사셨고, 키릴로스 성인은 그로부터 약 백 년 후에 사셨습니다.

두 분은 굳건한 믿음으로 이단에 맞서 싸

우셨고, 지혜로운 신학 저서로 교회 가르침을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두 분은 교부와 세계적 스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삶과 지혜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정교회)는 교부들의 교회이고, 교부들은 거룩한 삶의 체험과 신성한 지혜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승을 올바르게 권위 있게 해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쌀농사를 짓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수고는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우선 좋은 벼씨를 골라 물에 불려가며 소독해야 하고, 모판 작업 다음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못자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심기는 때를 잘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일이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농사의 성패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비오면 논둑 터질까 잠 못 이루고, 비 안 오면 논물 마를까 봐 한숨 지우고, 한여름 피약벌에 농약 치는 일은 차라리 고문에 가깝습니다. 피 뽑는 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농사입니다. 하지만 땅은 노력하고 정성 들인 만큼 언제나 정직하게 수확을 안겨줍니다.

신앙생활의 이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축복받아 사업도 잘되고 병도 고치고 집안에 우환도 없어지고 당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 뿌려놓고 갖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며 소출을 기다리듯,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싹은 움트지 않습니다. 세상살이도 노력과 인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력과 인내라는 자기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자기 일에 시간을 다 쓰고 남는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다가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만을 바란다면 그것 역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산악인과 같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훈련도 해야 합니다.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을 향해 오르다 뜻밖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노력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정상을 차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 노력과 인내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기희생적인 작은 정성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더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위선적인 그리스도교: 영적 여행 길에서 위선을 피하기(트리폰 수도원장)

만일 영적인 삶 앞에 있을 수도 있는 위험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을 인공적이고 꾸며낸 것으로 치장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른 채 바리새인이 될 것이다. 마치 무대감독이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저 무대 위의 배우와 같은 존재로 남을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겉 모습만을 지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정직하게 매일매일 자신의 양심을 살피고, 영적인 지도자의 규칙적인 인도를 따라 사는 것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이며, 이로써 마침내 우리 마음의 큰 변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일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없이 단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모습만을 지닌다면 그릇된 종교성의 수렁에 빠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것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양심을 숨김 없이 살펴봄으로써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야만 한다. 이런 것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인 체하는 연극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삶은 영적인 죽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영적인 삶에서 꾸밈과 거짓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이다.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관심이 죄를 정직하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드러내어 높이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욕망 같은 것에 모아진다면, 우리는 나무에서 죽은 열매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아타나시아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님과 임종훈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월 17일(목), 축일을 맞이하시는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님과 임종훈 신부님께 축하드리며, 안토니오스 성인의 중보와 주님의 은총으로 건강하신 가운데 교회에 많은 영적 발전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 식

대교구

■ 대교구의회 > 오는 1월 21일(월) 2019년 대교구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교구 소속의 각 성당 의회 구성원 여러분은 꼭 참석하여 우리 한국정교회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1월 21일(월) 12시 : 점심 식사 / 오후 1시 : 대교구의회

■ 장소 > 대교구청 회의실

■ 신자총회 > 오늘 1월 13일 주일 성찬예배 후 서울, 부산, 전주, 울산, 춘천 각 지역 성당에 서는 신자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여하여 2018년도 결산과 영적 사업 보고 및 평가 그리고 2019년도 예산과 영적 사업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겨울 수련회 > 2019년도 겨울 수련회가 1월 23일~26일(초·중·고등부), 26일~27일(신데즈모스)에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모님들은 수련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영적으로 유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학생회는 5만원, 신데즈모스는 2만원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1월 17일(목) 성 안토니오스 대수사 축일

■ 1월 18일(금) 성 아타나시오스, 성 키릴로스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축일

■ 각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